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 기 집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

## 비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

## 목적 | 리더십, 혁신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 양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5기 발자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진행





1·2차 캠프스톤 발표

수료식

해외방문연구조사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 AFA와 함께한 계절, 그리고 봄

구 자 정  
대한적십자사



###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그 열정을 기억한다

먼 출장 길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해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달려 면접에 참석했다. 조금은 긴장된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내 모습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봐도 외국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달려왔던 나의 선택에 대견함을 느낀다. 처음에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비영리를 위한 대학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열정을 품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다보니 나 역시 열정이 솟구치는 듯 했다. 올 여름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한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이다. 마치 대학교 신입생 시절 맞는 첫 수업처럼 아카데미에 오는 날, 내겐 설렘이 있었다.

### 일과 학습의 양립, 힘들었던 가을

여름이 지나 가을, 사무실의 큰 행사 준비를 아카데미 교육과 병행했다. 그 사이 캡스톤 프로젝트 발표도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무실 일과 우리 조 안에서의 내 역할에 대해서 온전히 나의 몫이었기에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휴일에도 사무실 일을 붙들고 있던 날이 많았다. 교육 초기 정해진 일정을 제외하고 절대 빠지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그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 때 더 분발 할걸...’이라며 내 스스로를 돌아 본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물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겠지만 말이다.





#### 겨울에 떠난 해외방문연구조사, 비 그리고 맑음

수업의 막바지를 달리며 캡스톤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 있는 해외방문연구조사를 위해 3개국을 방문했다. 재미있는 점은 3개국 모두 첫째 날에는 비가 왔고, 둘째 날에는 맑았고, 셋째 날에는 흐렸다는 것이다. 캡스톤 자체도 쉽지 않지만, 해외방문 연구조사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전체일정을 포함한 항공, 숙박, 방문기관 섭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돌이켜보면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은 덤이었다.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게 봄이다

이제 수료를 앞둔 지금, 나는 얼마나 변화했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지난 6개월보다 향후 10년 동안 나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아카데미가 큰 자양분이 되어주리라. 이번 교육은 나의 내일을 열어 주는 ‘봄’이었던 것 같다.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봄처럼, 나의 삶에 싱그러운 봄비를 내려줄 것이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과 헌신적으로 운영한 이승복 팀장님, 박지훈 팀장님, 강혜진 매니저, 백민경 매니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싶다. 더불어 긴 시간을 미소와 열정으로 함께해 준 5기 동기 선생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우리 모두의 삶도 꿈도 ‘Carpe diem!’

## 버팀목이 되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고했어 올해도~♪

권봉민  
월드비전



회사도 아닌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일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기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 특히 그러한 것들이 일상을 벗어나 나 스스로를 위해 자기 계발하는 기회였다는 점이 올 한 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에게 가장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며, 매일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에게 열정을 불어 넣어줄,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게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 때 마침 지난 기수에 참가했던 직장 동료들 통해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다.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나’이기에 다른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리고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스스로 욕심을 부려 ‘내가 먼저 검증 해 보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길고도 짧은 7개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가자마다 지원 동기가 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다.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는 멋진 비전을 가진 아카데미답게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수업을 듣기 위해 앞자리를 사수하며 수업을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캡스톤 수업을 제외하고 한 과목당 많으면 네 번의 수업이 진행됐기에 ‘개론’을 다 듣지 못하고 여전히 ‘I’m still hungry’인 상태로 아카데미를 마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가 나를 성장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한 동기들, 특히나 함께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한 조원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 들었지만, 스케일은 점점 작아져 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작아져만 갔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강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원들의 매력을 발견해 갈수록 ‘나’라는 사람도 점점 더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업 뿐만 아니라 조별 토론, 워크샵, 기관방문, 해외방문연구조사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주 2회 늦은 밤까지 모임을 갖고 공부했던 열정이면 다른 일이나 업무들도 얼마든지 성실하고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카데미의 모든 과정을 ‘천사’처럼 섬겨주신 매니저님과 팀장님, 그리고 열정으로 강의해주신 모든 교수님과 우리 30명의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고싶을 거예요~!! ^^”



## 새로운 도전과 고민이 시작되었다

김 동 우  
굿네이버스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는 막연하게 배우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수업에 임했던 것 같다. 함께하는 동기들의 소중함이나 앞으로 나에게 많은 도전과 고민을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며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아니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생각 해오던 것보다 더욱 다양한 영역의 NGO 활동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각자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 수업마다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더 나은 업무를 하기 위한 도전과 고민, 우리 사회를 위해서 NGO 활동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도전과 고민이 계속 되었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음에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기관의 중간 관리자로서 특히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내가 팀원들을 이끌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지, 그리고 과연 나는 저런 리더십을 갖추어서 팀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다. 수업을 끝난 지금 내게 남은 가장 큰 도전과 과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리더의 위치에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이해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었다.

### 속도는 방향을 이기지 못한다

캡스톤을 하면서 가장 가슴 속 깊이 새겨진 말이 ‘속도는 방향을 이기지 못한다’이다. 우리 3조는 특히 주제가 5번 정도 바뀌면서 계속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계속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대한 불안감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다. 해외방문연구조사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방향을 잡는다는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함께하는 동료들의 생각을 모아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 달려가겠다는 생각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번의 주제를 바꾸면서 방향이 잘못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고 다시 전력질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Thanks to

아카데미 교육을 해오면서 항상 고마웠던 분들이 있었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기관의 회장님과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많은 업무로 팀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우리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항상 업무와 교육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남편을 배려해주고, 늦게 온다고 구박 한 번 안 한 사랑하는 부인과 평일 많이 놀아주지 못했던 딸아이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배움을 통해 도전과 고민을 남겨준 아산나눔재단과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 ‘초고애진(超苦愛眞)’의 정신으로…

김 무 용  
성남시장장애인권리증진센터



아산나눔재단과의 인연은 산하기관과의 제주도 연수에서 시작됐다. 9년 간의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귀국한 지 5개월, 조직의 수장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 지 겨우 2개월째 되던 2016년 1월 말, 연수기간 중 만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에 참여했던 한 복지관 직원의 소개로 아카데미를 처음 알게 됐고, 아산나눔재단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접하면서 처음의 소박했던 관심은 점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참가 신청 의지로 변해갔다.

물론 한국 사회와 새로운 조직에 새롭게 적응하는 단계에 있던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주 2회씩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아직 소속되어 있는 조직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른 나라 언어로 서툴게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느꼈던 공허함과 치열하고 역동적인 토론 과정에 대한 갈증, 그리고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등 조직의 리더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나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었고, 앞서 언급한 장애물들을 누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교육 첫 날부터ダイ나믹한 시작을 알렸다.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이뤄진 입학식과 특별했던 자기소개 시간, 북한강변의 멋진 연수시설에서의

흥미로운 Ignite와 요가수련 등... 무엇보다 육체 노동과 감정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영리 조직 중간 관리자들에게 아산나눔재단이 정말 각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교육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느낄 만큼 커다란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고 유익했던 교육은 김태영 교수님의 '전략' 수업과 방대욱 대표님의 '리더십' 강의였다. 전략 교육 내용은 실제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비전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방대욱 대표님의 리더십 강의는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의 내 자신의 역량과 현 위치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많은 영감을 주었다.

'캡스톤' 수업은 개인적으로 '소통'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을 발전시킬 수 있던 시간이었다. 아마도 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카데미 참여자들은 공히 이 캡스톤 수업을 통해 각기 처한 입장에서 다양한 영감을 얻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소통과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고민은 '노인과 다른 세대 통합'이라는 우리 3조의 프로젝트 주제로 이어졌다.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도 세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세대 간 접촉면을 넓히고 소통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직장 업무와 아카데미 과정을 병행하면서 겪은 심적 부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하지만 어렵게 버텨낸 7개월 동안 조직의 리더로서 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산나눔재단 가족들을 포함해 비영리 영역의 최고 전문가 29인과 맺은 인연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이제 심적으론 참 기나긴 지난 7개월의 여정을 마치며 나와 함께 했던 여러 동료들에게 '참 고맙고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물러나고자 한다.



## 숨은 나 찾기

김영숙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몇 년 전부터 꼭 듣고 싶었던 과정이었다. 기관 사정과 개인적인 사정이 맞물려 2016년이 되어서야 지원할 수 있었고, 영광스럽게 5기로 참여할 수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의 첫만남은 두근거리는 긴장 속에 시작했던 것 같다. 어찌나 말씀들을 잘 하시던지... 소감을 말하는 동기 선생님들의 말씀에 입이 짹~! 존중의 대접을 지속적으로 베풀어주시는 매니저님들의 모습에 감탄이 아~! 그 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 사실 그 고민들이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사회복지를 시작하고, 나름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고 확신해 왔었다. 그러나 사회연대은행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또 다른 우물에 갇혀 있었던 것을 스스로 몰랐을 뿐이었다. 사회복지, 모금, 소비자운동,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 등 각기 다른 비영리 기관에 근무하는 동기 선생님들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배울 수 있었고, 캡스톤을 통해 협업의 어려움과 필요성,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역동을 생각하며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개인적인 성장까지 할 수 있었다.

특히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캡스톤은 오랜만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자 최고의 특훈이었다. 일을 할 때 불편한 감정을 참아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 캠프톤을 진행하는 내내 ‘나’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고, 부족함을 인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순간 ‘좌절’이라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였다. 지금은 이러한 고민이 겹겹이 쌓여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났고, 앞으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는 희망도 생겨난 것 같다.

‘좌절’이란 친구와 절교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조언해주던 5기 동기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노는 것에는 최고인 우리 5조 선생님들~!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가이며 실력파인 5조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아카데미에 10년 동안 보지 못한 숨어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어 놀랐지만, 이제 숨어있던 나를 완성해 나가는데 10년을 더 투자할 생각이다. 더 많은 고민이 쌓여가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입혀져야 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확실하게 얻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관계자 및 교수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친절함과 노련함으로 교육을 운영 해주신 두 매니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있었기에 5기의 수료도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제 아카데미는 수료하지만,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5기 동기 선생님들 모두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로 우뚝 서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등반대회

김 지 희  
성남시한마음복지관



### 하나, 둘, 셋, 넷!! 준비운동

봄과 여름의 사이쯤 되는 5월 어느 날,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으로 면접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 시기 나는 일에 있어서 익숙함에 길들여져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아카데미 모집공고를 보는 순간 ‘이 때를 위함 이구나...’ 라며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다. 입학식 날 동기들의 소개와 다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어깨가 내려가고 겸손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함부로 나서지 말고 조용히 묻어야겠다’ 라는 발칙한(?) 생각을 하며 준비 운동과 같은 2박 3일 워크샵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등반이 시작되었다.

### Fighting!! 등산 시작

‘캡스톤 프로젝트’ 라는 미션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조와 조원이 정해졌다. 화이팅을 외치며 아카데미라는 등산이 시작되었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 개성 강한 6명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갈림길이 나뉘듯 6명 각자의 의견이 나뉘었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채운다는 기대감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돌계단과 끝없는 오르막길을 마주하는 듯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조각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듯 소통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을 걷듯 나아갔다.



### 숨이 턱턱!! 야호~

처음 아카데미에 지원할 때만 해도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잘 배워 성장하고, 내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리더로 나아가겠다고 초심은 교육과정 중반부쯤 이르렀을 때 슬슬 지쳐가는 느낌이 들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다리가 풀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아카데미도 분명 그런 순간이 존재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을 해결해 나가며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과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산 정상에 올라 전체를 조망하듯 상황의 이면을 관찰·분석하게 되면서 사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니 비로소 상쾌하게 외치고 싶다.

“야호~~~”

### 하산, 그리고 Re-Start

교육이 있는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급한 업무를 정리하고 아카데미 교육장으로 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기관의 리더로 내 몫을 해내야 한다. 지치고 힘든 날이면 교육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그럴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교수님들과 친절한 아산나눔재단 직원분들이 있어 행복했다. 늘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만 하다가 누군가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느낌에 소소한 행복함이 있었다. 이제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역량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위한 새 출발을 준비해야겠다!

## 꿈★은 이루어질까~?

김 태 욱  
한국헬프에이지



### 무엇을 위해 시작했나?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을 때가 기억난다. 비영리 조직에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현실의 무게감을 짊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무거운 무게들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마땅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주 절실한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나에게 고민을 더 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사실 처음 과정을 시작할 때에는 재미를 많이 기대했었다. 그런데 하루하루 교육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많아졌고, 더욱 진지하게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많이 힘들었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을 마무리하는 지금, 결국 답을 제시하는 것은 ‘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7개월 동안 1%는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 그럼 왜 1%일까?

문득 ‘언터처블: 1% 우정’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서로를 신뢰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그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이해,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작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카데미에서 겪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아카데미를 통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 할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2명의 가족을 얻다

우리 5기 동기 29명,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팀장님과 매니저님들. 7개월이란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형, 누나, 동생들과 늦은 시간까지 티격태격하며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7개월의 시간과 지금은 이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에 ‘안녕’이란 말은 쓰지 않겠다. 앞으로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한다.

“함께한 소중한 시간, 좋은 기억으로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화이팅!”

## 의미있는 일을 보다 즐겁게,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김 희 은  
하트하트재단



왜 일을 마주할수록 내가 가졌던 확신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서 있는 곳과 방향에 대해 답답함이 커져만 갈까?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아카데미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스친다. 교육 수료를 앞두고 '그래서 그토록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되었나' 고 묻는다면, 고민의 근원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가진 외롭고 힘든 고민이 아니었음을, 여기 모인 사람들과 비영리 영역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더 좋은 대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안도감에 든든함까지 생겼다.

무엇보다 캡스톤 모듈을 통해 '일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온 몸으로 체득했던 시간은 아마 평생 나의 삶과 일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보다는 일을 중심에 두고, 과정보다는 결과로 판단하던 나의 모습이 캡스톤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오해와 이기심, 의사소통의 문제로 깨어지는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나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했던 과정은 나를 단련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일을 보다 즐겁게,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해나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들으며 조직 내에서 어느 순간 수다쟁이가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마 그 어떤 교육보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쉬워 위아래 구분 없이 공유하고, 또 느낀 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절로 뜨거워지고 함께 구현해보고 싶은 의지도 생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훌륭한 교수진과 정교한 커리큘럼은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30명의 현장 실무가들과 진솔하게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치열하게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정말 큰 배움이 되었다. 각양각색의 개성과 강점으로, 때론 다양한 관점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알게 해준 마농트로포 3조 조원들을 비롯하여 교육 때마다 크고 작은 가르침을 주었던 5기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의 세심한 배려와 지지는 오래도록 따뜻함으로 남을 것 같다.

‘끝까지 업무와 잘 병행할 수 있을까?’ 라는 망설임으로 시작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배움’과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삶과 일 가운데 순간순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앞으로 우리의 만남과 함께 해 나감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소망해본다.

## 새로움이 가득한 사계

나 윤 경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난 5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면접일이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연수 마지막 날이라 나주에서 직원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서울로 올라왔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라 멍한 상태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실 안에 아는 얼굴이 보였다. 부산에서 알던 선생님을 아카데미 면접장에서 만나게 되어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던지.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눈빛으로 서로 마음을 전하며 면접을 잘 보라고 응원한 뒤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 이후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가슴 졸였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가슴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 그리고 받게 된 합격 통보! 너무 기뻐지만, 그 분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단 생각에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다. 연락하기도 어려워 마음으로만 간절히 합격을 바라고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합격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이런 작은 해프닝과 함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설렘에 꿈 많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에서만 5시간 20분을 보내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되었다. 그동안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랬기에 이 시간들이 나에겐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왜 지금 이 곳에 있는지 생각하고,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기도 하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던 나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면서 후회는 없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막연함이 느껴졌었다.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떤 해답을 찾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이왕 시작한 것 100% 출석으로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6개월을 열심히 달려왔다.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었고, 특히 동기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글을 통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 동기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직원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 모두에게 더 많은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 화이팅!



## 다시 오지 않을 귀한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박 명 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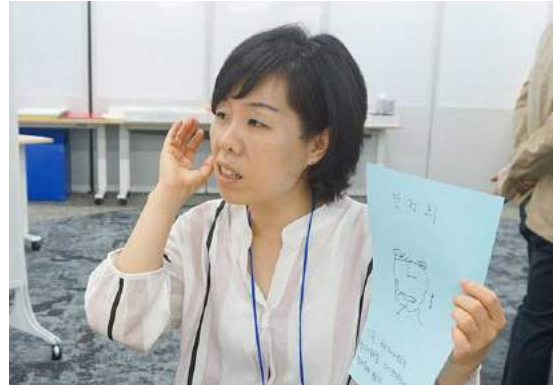
눈에 띄는 첫 문장을 만들기 위해 영화 대사를 인용하며 지원서를 다듬던 것이 어제의 일 같다. 그 대사는 용기와 즐거움을 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 뿐, 몸으로 견디고 터득해야 할 배움의 현장은 역시 달랐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다’는 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 후회될 정도로 교육과정 초기에 나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배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시각에 문제는 없는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다. 아픈 자기반성을 반복하며 변화에 대한 생각과 성찰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지를 정말 충분히 느끼고 경험했다.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 속 무인도에 떨어진 아이들을 연상하게 하는 캡스톤 수업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캡스톤 수업에서 매번 강조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실천’이 뜻하는 ‘상황’이란, 내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 상황과 사람이며 심지어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저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 때문이었다. 캡스톤의 통제된 상황보다 실제 삶의 현장은 더욱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지 않은가? 잔뜩 긴장한 몸에서 힘을 빼듯, 상황과 사람을 보는 관점을 달리해보니 불편함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힘과 경기장 안에서도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며 뛰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설계된 최고의 배움터이다. 나는 매주 교육을 통해 다시 오지 않을 귀한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고, 현장에서 살아 갈 지혜와 힘을 얻고 또 얻었다.

6개월을 달려온 지금, 오리엔테이션 워크샵에서 정진홍 고문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읽어주셨던 ‘우분투’ 정신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 본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 것. 모두 서로 이어져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서로 도전하고 함께 훈련한 5기 동기들과 특별히 3조 마농트로포 조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는 배움의 현장에 함께 있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모든 교수님들, 혹여 낙심할까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챙기고 돌보아 준 아산나눔재단 직원들, 교육과정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주었던 우리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 인생 제3막

박재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지원동기는 간단했다. 비영리 분야에 들어온 지 5년. 조직의 성장에 더 기여하고 싶었지만 나는 많이 부족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필요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런 내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었다. 전략, 리더십,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캡스톤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해외방문연구조사의 기회도 얻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나간 지난 7개월은 단순한 ‘배움’의 시간만은 아니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비로소 우물 밖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된 첫 발자국이었다.

우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나의 오래된 우물이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그저 배우러 온다고 생각했지만, 아카데미의 수업들은 세상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원했던 ‘성장’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 삶의 나침반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과거 내 인생의 첫 번째 방향은 ‘성공’이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서른에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났으며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방향인 ‘헌신’이었다. 그 후 나는 비영리 분야에 들어왔다.



비영리 단체에 입사하려 면접을 보던 때 일이다. 어느 재단의 대표께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성공하고 싶은가? 헌신하고 싶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황설수설 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다. 어쨌든 나의 대답은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른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7개월을 보낸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 할 것이다. ‘성공적인 헌신’을 하고 싶다고. 바로 그것이 아카데미가 내게 알려준 인생의 세 번째 방향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헌신’이란 내가 이루고 싶은 미션과 비전을 보다 제대로,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단순히 좋은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물론, 세상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느다란 실금을 내기도 힘들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내게 말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카데미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지식, 상상력, 열정과 협력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카데미를 위해 성공적으로 헌신해주신 교수님들과 사무국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5기 동기분들과 우리 일촉즉발 1조 동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의 표시라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의 인생 제 3막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처음 들어올 때와 같은 긴장과 설렘이 다시 시작되었다. (두근두근)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폭 젖었던 그리운 시간

박지영  
함께일하는재단



조직구성원 간의 단절, 소통의 부재, 협업의 감소, 내부 구성원의 소진, 사업의 관행화, 조직의 관료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보완하고, 성공이 가능한 일을 아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보여주기 좋은 사업 중심으로 고민하는 등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났다.

다른 수업들도 모두 좋았지만 캡스톤은 단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핵심이었다. ‘목적을 정의하는 목적’, ‘15초 권력’, ‘태업’,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 과정을 경험하면서 구성원들의 성향, 표현방식의 차이, 인식의 다름, 터놓는 마음과 적절히 가면을 쓰고 있는 태도 등에 지쳐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왜 아카데미에 왔는지, 왜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 끌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3조는 ‘차세대 리더 역량 강화’, ‘국내 비영리 분야 지속가능발전’,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의 적합성 검증’, ‘비영리섹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보 공유를 위한 NGO 위키 프로젝트’, ‘공익 활동가의 미래 탐구’, ‘비영리 실무자 이탈 감소를 위한 NGO 공유 플랫폼 구축’, ‘이상적인 비영리 조직을 위한 탐구’ 등 캡스톤 주제만 6번 이상 바꿔 가면서 서로의 고민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갈 수 있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회오리 바람이 불고 번개가 팡팡 쳐서 그 형세를 돕는다. 빗줄기가 굵은 것은 기둥만 하고, 작은 것은 대나무 같다. 잠깐 사이에 붓도량은 넘쳐 흘러 연못처럼 되니 대단하다 할 만하다. 하지만 잠깐 사이에 날이 개어 햇볕이 내리쬐면 지면은 씻은 듯이 깨끗해진다. 땅을 조금만 파보면 오히려 마른 흙이 보인다. 연못처럼 고였던 것이 능히 폭 적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슬부슬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는 비는 땅 속 깊은 데까지 다 적시고 온갖 사물을 윤택하게 한다. 이른바 폭 젖어 든다.」

참여기간 내내 독서를 소나기와 비유한 이덕수 선생님의 말을 상기하였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분명 나에게 소나기 같은 존재였다. 30명의 동기들과 선배들과의 만남, 오리엔테이션과 각종 워크샵, 각 과정의 수업들이 회오리처럼, 번개처럼, 그리고 요란하게 쏟아 붓는 장대비처럼 매 순간 다가왔다. 아산나눔재단 스텝들은 정성스런 음식을 좋은 그릇에 담아 잘 차려진 밥상을 대접하듯 나를 귀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그 시간들이 흥분되고, 즐겁고, 시원해서 맨발로 뛰어나가 옷을 다 적시며 물놀이하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만났다.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 다 읽기 벅찬 책들이 큰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분명 즐거웠고 변화의 과정에 있는 나,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순간을 충분히 즐겼는지 묻는다면 나는 '충분히 젖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짧았기에 더 아쉽고, 그리운 시간인 것 같다.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교수님들, 함께 해준 동기들, 과하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않은 마농트로포 조원들, 감동의 아산나눔재단 스텝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토닥토닥 내 마음

신 용 식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나는 보수(적)이다. 안정을 바라고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며, 갈등을 피하고 위험을 지양하는 마음이 크기에,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이런 보수적인 나에게 도전과 혁신, 진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며 끊임없이 옆구리를 찌르는 그 무엇이였다. (여기에서 보수와 진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

쉽지 않았던 6개월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6월, 오리엔테이션 워크샵에서 들은 말 중 '여러분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라는 말이 기억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과정에서 미는대로 앞으로 갈지, 잠깐 멈출지, 되돌아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7개월을 보냈다. 지금도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전 보다는 조금씩 용기를 내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토닥토닥 내 마음을 다독여본다.

다양한 수업을 듣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에 울림을 느끼고, 공감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방석 돌리기'가 기억에 남는다. 돌아가는 방식을 하나의 손가락으로 지탱하며 돌리기 위해서는 경직된 메뉴얼이 아니라 오감을 동원한 선택과 판단, 수많은 연습으로 그 중심을 찾고 지켜야 한다. 당연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수많은 동영상 링크와 읽을 책을 소개 받았었고, 틈틈이 메모 필기를 열심히 해왔다. 필기를 열심히 해도 나중에 쳐다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아카데미 과정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레이드 오프의 중요성’, ‘고몰입 인사시스템’, ‘리더십의 7가지 실천 목록’ 등 아직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생소하고 어려웠던 지난 7개월의 과정을 자주 메모를 꺼내어보며 앞으로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도록 힘써주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 대표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지난 7개월간 무척이나 세심하게 신경 써 준 사무국 선생님들에게 특히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 목적이 있는 출발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 시작이 주는 의미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 진행된 입학식. 내게는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도일이기도 했다. 아버지 1주기 추도일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2박 3일 워크샵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변화될 나 자신을 기대하는 설레고 의미 있는 첫 출발이었다. 그리고 워크샵에서 깨달았다. 이 과정은 외부와 단절되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 도전, 그리고 배움

일주일여 하루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게 주 2회 수업과 주말까지 진행되는 수업을 전국행사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첫 번째 도전이었다. 기대되는 커리큘럼과 강사진, 그리고 어디에서도 대우받을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돕는 아카데미의 지원 시스템이 나를 집중하게 만든 것 같다.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업은 '전략'이었다. '전략은 방향이다', '가치창출', '핵심역량', '목표(의도)를 잃지 않는 것' 등 주옥 같은 개념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늘 성과는 효율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지협 적이고, 편협했던 패러다임에 전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략 수업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코 편하게 두지 않고, 늘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캡스톤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6명이 만든 작은 조직에서 서로 동등하게 역할을 바꿔가며 훈련하고, 작은 심리적 움직임까지 꼼꼼하게 자각하게 하면서 통찰력을 훈련시킨 수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던져준 과정이었다.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내 생애 처음으로 유럽에서 가졌던 해외방문연구조사의 추억은 오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6개월을 동거동락하며 서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아파도 하고, 격려도 하며 함께 성장한 조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은 최고의 보너스였다. 아카데미 5기 동기들은 앞으로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지금부터 출발이다.

어려운 과정들을 힘겹게 달려온 지금, 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차세대 리더에 가까워졌는가? 여전히 내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많은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출발이다. 7개월의 과정은 내게 겨자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 이제 스스로의 동력으로 더욱 전략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겨자씨를 키우고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장을 통해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다.

## 런닝맨

유 숙  
송국클럽하우스



『런닝맨』은 주말에 우리 집 작은 아이가 즐겨보는 방송으로, 6명의 멤버들이 방송 내내 열심히 뛰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신 없이 뛰어다니는 방송을 왜 보는가 싶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한 뒤 어느 순간부터 런닝맨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여러가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캡스톤 조별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98년 기관에 입사했을 당시만해도 초창기였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신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장도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취업장 개발을 위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기관장이 되었고, 송국클럽하우스를 둘러싼 사회복지 환경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 접근해야 하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그동안 즐겁게 해왔고, 앞으로도 즐겁게 하고 싶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래서 아카데미 4기에 참여했던 선배의 추천에 주저 없이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열심히 다녔다. 많은 교통비와 시간, 그리고 열정을 투자했다. 엄청난 이동거리와 많은 투자가 아깝지 않을 만큼 아카데미 과정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등 어느 수업 하나 도움되지 않은 수업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사회혁신 모듈 수업들이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다. 디자인씽킹 워크숍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운 참여 수업이었다. 메이커스빌에서 3D 프린터로 직접 만든 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캡스톤 모듈도 특별했다. 리플렉션 메모에 코멘트를 달아주신 코칭 선생님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송국클럽하우스의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엄격한 거울 역할을 해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미국으로의 해외방문 연구조사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 팀의 캡스톤 프로젝트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주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개인 신고시설의 한계를 가진 송국클럽하우스의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용기를 주었고,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30명의 동기들은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 7개월을 함께한 동기들과 모든 일정에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강혜진 매니저와 백민경 매니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짜요~~ 짜 ^^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Not I But Christ, 나와 다른 이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초고애진(超苦愛眞), 신뢰와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자,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자로서 스스로 먼저 행복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다,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일하자, 혼자만의 만족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자, 지역에서 청소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화이부동(和而不同), Simple Life Sample Life!,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흐르는 강물처럼, 역지사지(易地思之), 지금 바로 여기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자, 현재를 즐기고 즐겁게 살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자, 할 일은 하고 할 말도 하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행복은 정류장이 아니라 여행해야 할 과정이다, 진실하고 따뜻한 사회복지사가 되자, 다 함께 다 다르게, 사소한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라.』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동기들의 포부를 되뇌어본다.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29명의 동기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더 나누고, 공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 류시화님의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

류시화님의 시에서 말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아카데미 5기 동기들을 말하는 것 같다. 5기 동기들 모두 우리 사회를 위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 나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들고 운영해준 아산나눔재단에 가슴 깊은 감사를 전한다.

## 예상과 너무 달랐던 고마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 동 화  
아디 (ADI)



시작은 별다른 기대가 없었다. 국내 여러 기관을 통해 NGO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큰 감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카데미에 대한 사전 정보도,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추천인이 전달해준 홍보물과 홈페이지 상의 정보를 보며 ‘프로그램은 나를 알차네’ 정도의 기대 수준이 전부였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완전 뒤집어졌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참여하는 동기들을 보고 많이 놀랐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인 것이 놀라웠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배움에 대한 열의를 보고 또 한번 놀랐다. 사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부산에서 세 분이나 과정에 참여하셨는데, 매주 두 번씩 부산에서 올라와 다음 날 새벽에 내려가는 그 험난한 일정을 기꺼이 소화하시는 걸 보고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스케줄과 업무량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동기 분들의 열정은 느슨하고 나태했던 나 스스로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두 번째, 막강한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들이 인상적이다. 아카데미의 다양한 커리큘럼들은 국제인권이라는 특정 분야에서만 활동했던 나에게 큰 배움이자 도전이 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중에 새로운 단체를 런칭한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했던 내용이었다. 전략과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등의 수업에서 얻은 정보와 내용들을



새로 시작한 단체에 바로 대입하고 시도하여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내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캡스톤 모듈의 팀 토론 과정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경험하고, 팀 역동을 살펴보고, 글로 정리한 일련의 과정은 항상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었다. 리플렉션 메모, 발표, 코칭 팀의 코멘트 등은 나 스스로가 어떤지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수정 지점과 발전 지점을 확인시켜 준 좋은 자극이 된 수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산나눔재단 사무국의 전문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에 감탄과 고마움을 느꼈다.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팀장님, 매니저님들, 인턴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프로다운 코디네이팅이 무엇인지 역으로 느낄 수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일주일에 두 번씩 들었던 다양한 수업도, 열정적인 교수진들의 강의도, 열띤 토론도, 팀원들과 동기들간의 유쾌한 웃음도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어 많이 아쉽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은 앞으로 새로운 단체인 '아디'의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아카데미 5기 동기분들, 교수님들, 재단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다!

이 만 영  
동산노인복지관



###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쓸모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세종대왕처럼 모두의 편리를 위해 발명하지는 못해도, 마틴루터킹처럼 차별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지는 못해도, 더 나은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부터 나아지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다.

### 리더십은 모두ship

내가 배운 리더십은 어벤저스와 같이 '모두 함께 발휘하는 리더십'이다. 무언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집중할 때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만 알고 있었는데,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라는 속담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변화무쌍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각자의 리더십과 재능이 발휘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들이 많아진다면 그 변화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 존중 :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존중 받은 것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이미 나를 리더로 여기고 존중해주었다. 누군가가 존중해 줄 때, 적극성과 자발성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아직 그러한 리더십이 아닌데, 이미 그 수준으로 여겨준 아카데미에 감사한다. 나이, 직업, 학력과 지식을 떠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존중 받았던 기억이 참 소중하게 간직될 것이다. 작은 배려와 섬김이 감동이 되고, 나도 이런 감동을 주고 싶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관리자로 중간에서 어설픈 관리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이그나이트 ; 점화되다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녹아내려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태우지 않고는 빛을 밝힐 수는 없다. 아카데미가 시작했을 때, 나는 점화되었다. 불순물 같은 생각은 타버리고,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 경기장에 있다가도 관중석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관중석에 있을 때는 경기장에서의 시각으로 뜨겁고 치열하게 생각해 보는 경험이 되었다. 생각이 벽에 부딪힐 때에는 생각을 드론에 담아 머리 위로 띄워 가능한 우주 밖까지 띄워보려는 노력을 한다.

### 감사가 울림

아카데미에서 동료들과 함께 얻고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그들, 그 순간과 다시 만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 아! 아, 아~



## ‘봄을 만난 그대는 꽃’

이 보 미  
한국컴패션



작년 이맘때 겨울이 생각난다. NGO 분야에서 일해온 지 5년째 되던 때, 나 스스로 어떤 부분은 성장했고 어떤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고민해 본 시간이 있었다. 꿈꿔온 미래에 대해 다시 상기해보고, 지금의 나는 어디 즈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후에는 자아실현을 넘어, 타인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준비하고 싶었다. 이 때, 아산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풍부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팀 내 아카데미 4기를 경험한 선배의 추천으로 본 아카데미 소개 영상 중 “내가 배운 것이 모두의 것이 된다”는 말이 큰 울림을 주었고, 실제 그것을 경험해보고자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후회 없을 만큼 뜨거운 7개월을 보낸 것 같다.

이제 주변 동료들이 나에게 묻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뭐야? 거기서는 뭘 배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몰랐던 ‘다양함’을 새롭게 맛보고 배우는 곳.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지혜가 또 있을까 싶다.

우리 기관 4명의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그간 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NGO·NPO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 오면서 각자 마음에 지닌 질문은 다를지 모르나 그 질문을 풀어보기 위해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지원하고, 마음껏 실험해보고 실수해 볼 수 있도록 열린 곳은 아마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아카데미는 비단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등 양질의 강의 커리큘럼만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었다. 정답 없는 물음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모범 답안이 아닌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그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교수진, 선배, 동료, 아산나눔재단 스텝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지난 7개월 내내 나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NGO·NPO 종사자들에게 이는 응원 그 이상의 의미일 것이다.

6월 9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첫 번째 자기소개 시간에 인사했던 것이 생각난다. “제 이름은 ‘봄’입니다. 여기 계신 29명의 동료 분들은 모두 각자의 색과 향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봄을 만나 그 꽃들이 피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옛말에 ‘화향백리(花香百里) :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酒香千里) :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人香萬里) :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는 말처럼 이 세상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색과 향으로 꽃피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모든 동료들과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스텝분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자랑스럽다. 다양한 꽃들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 어디에서도 홀로 시들거나 마르지 않도록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옥토가 늘 비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기대, 상처, 오기, 불안, 자축, 부담, 고민, 시원, 서운, 정진

이요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15년 아카데미 4기 도전 당시만 해도 부하직원(과장)이 3기 과정에 합격해서 수료했기 때문에 떨어질 거란 생각은 해보지 않은 채 기대감만 있었다. 그런데 불합격. 오랜만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왜 떨어졌을까? 과장도 한번에 붙었는데... 내가 과장보다 더 부족한걸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보다는 떨어졌다는 민망함에 오기(傲氣)로 5기 과정에 재도전하였다. 이번엔 불안감이 밀려왔다. ‘또 떨어지면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도전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등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불안감을 밀어내고 합격!! 스스로와 직원들에게 몇몇이 합격 소식을 알리고 자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만의 자축 분위기는 수업이 시작되면서 시나브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록하지 않은 수업과 과제에 대한 부담, 캡스톤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 주경야독하며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때보다 정확히 1.5배 어려웠던, 결코 쉽지 않았던 7개월간의 과정이 드디어 끝났다. 시원하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교육과정에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질 않는다.



그러나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누가 그러지 않았다. 7개월 간의 고민과 부담감, 육체적 피로 등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이제 내가 중간관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고 열 걸음, 백 걸음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비영리 분야 곳곳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훌륭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는 5기 동기들을 보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 덕에 내가 마치 일류대학의 학생인 듯 기분 좋은 착각을 잠시나마 하기도 했다. 아산나눔재단 직원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덕분에 존중받는 위치에서 기분 좋게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며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설렘으로 다가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비영리 단체에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에 찾아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들과 면접 때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떨림,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돌이켜보면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과정을 이렇게 마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 나의 성장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의미 있는 입학식과 색다른 워크샵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략 모듈부터 재무·회계 모듈까지 일주일에 2회씩 이어진 7개월간의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략 모듈은 접하기 쉽지 않았던 내용이었으며, 캡스톤 모듈은 수업이라기보다 나의 모습을 성찰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이었다. 밤 늦게까지 이어졌던 조원들과의 토론 속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었고,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을 위해 해외방문연구조사까지 진행하면서 더욱 과정에 몰입할 수 있었다. 작성했던 리플렉션 메모를 다시 보면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된다. 코칭 선생님의 울림있는 조언들은 다른 교육과정에서 느낄 수 없는, 아카데미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과정을 통해 나의 성장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 답을 찾기 보다는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을 바라보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만 집중했었는데 과정을 수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문제의 상황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나의 주장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늘 나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려고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함께 협업하면서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과오가 너무도 많았다. 조급함도 있었고, 성과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대접받으며 수료함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준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수료생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때론 기다려주는 스태프들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으며 축복이라 생각된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주는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힘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교수님들과 5기 동기생들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랑스럽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수업을 받으러 가는 그 설렘을 항상 품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수라 속에 찾아오는 터닝포인트

이 종 미

서울YWCA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2016년 3월은 나에게 격변의 시간이었다. 1년 여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나에게 새로운 발령지와 처음 맡아보는 기관장이라는 직함은 너무 버거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설상가상이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다. 새로운 일터의 적응과 오랜만에 시작하는 공부, 이 두 마리 토끼중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불안감과 두려움이 3월을 꽉 채웠다. 두 번의 지원서 제출과 한 번의 면접 이후 불행인지, 다행인지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고, 29명의 동기들과 7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되는 수업들은 그동안 안일하게 일하고 있었던 나의 머리를 깨부수는 도끼 같은 충격이 되었다. 전략 모듈은 내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환경을 분석하고, 어떤 차별성과 전략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행의 팁을 제공해 주었다. 리더십 모듈은 ‘센터장의 자리에 앉았으니 나는 리더지’라는 착각에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었고, 제대로 된 리더, 괜찮은 팔로워로서의 나의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인적자원 모듈을 통해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20여 명의 직원들을 상호신뢰의 직장 문화 속에서 학습·성장시키는 것에 대해 나뉠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성과가 아닌 ‘협력과 지지’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선물 같이 내게 주어졌다. 재무·회계 모듈은 센터장이라는 자리에서 조직 전체의 회계를 이해 하는데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게다가 아카데미의 화룡점정인 캡스톤 프로젝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수업 시간에 점점 작아지는 학생으로서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6명의 마음을 모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란 사실을 뼈아프게 알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늘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헉헉대며 뛰는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다면, 경기장 밖에서 경기 전체의 흐름을 보며 필요할 때 들어가 뛰고, 다시 나와 경기를 바라보는 '낄낄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기)' 전략의 중요성을 인생 처음으로 배우는 돌도 없을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다시 하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할 혼란스럽고 고단한 프로젝트를 통해 분명 내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없었더라도 내 올 한 해는 충분히 바쁘고 정신 없었을 것이다. 6번의 평가와 점검, 그리고 크고 작은 쉼 없는 문제들. 그럼에도 아카데미를 통해 그 이수라 속에서 앞으로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눌 동료들을 만났고, 방향을 잃어 헤맬 때 뒤적일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을 얻었으며, 내 나이 마흔 여섯에 즐린 눈을 비벼가며 책을 읽고, 과제를 하고, 머리를 맞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슴 뛰고 설레었던 봄, 여름, 가을을 가질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떠냐며... 난 대답했다. “도전해봐. 그런데 세상의 모든 도전이 행복한 결말만 있는 건 아니란 것 알고 있지? 고통과 번민과 자기비하에 빠지게 될 거야. 혼란스럽고,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자기 의심도 하게 될 거야. 현대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그런 난장판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 참 재미있지?”



## 신선한 자극!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임 주 경  
한국소비자연맹



센터장님의 권유로 우연히 알게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사실 아카데미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1, 2차 서류 심사에 3차 면접까지 있다는 얘기에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 이길래 심사 과정이 이렇게 까다로울까?’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1차 서류 통과 후 2차 서류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찾아보던 중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넘치고 환한 표정의 수료생들의 사진을 보며 잘은 모르겠지만 나도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차 서류, 3차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던 것 같다.

사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저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매일을 버텨내며 익숙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던 터라 새로운 변화, 도전이라는 것은 낯설고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일 뿐이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런 나를 깨우기에 충분한 신선함이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입학식 날. 몇몇 동기 선생님들이 두세 번씩 도전해서 합격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위력에 다시 한 번 놀라며 아카데미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타는 의지도 잠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일정부터 기록하지 않았고, 일과 병행하면서 아카데미 일정을 소화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근무를 하다가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험레벌떡 강의실에 도착하는 날이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기도 했고, 캡스톤 수업 후 쏟아지는 깨알 같은 리플렉션 메모와 촘촘히 진행해야 했던 조 모임까지 정말 만만치 않았다. 아카데미 과정 초반에는 ‘수료하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수기를 작성하는 지금 7개월이란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니 매 순간 조금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들을 이제부터 천천히 되새기며 꺼내봐야겠다. 어쩌면 아카데미를 마치고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지금부터가 진정한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과 노력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다짐을 다진다.

무엇보다 아카데미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5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긴 시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지원해주셨던 아카데미 운영팀과 나의 빈 자리를 든든히 채워주었던 직장 동료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장진숙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지난 3월, 지원을 위해 작성했던 자료들을 다시 보며 그 당시 내가 하고 있던 고민들과 가졌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찾아왔었다. 아카데미 5기 과정은 내가 하고 있던 이런저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주 2회씩 교육 때마다 만났던 지혜로운 동기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기관에 돌아가 잘 활용하게 된 점도 아카데미를 통해 얻게 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 팀원들과의 함께 생활한 경험도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회복지사!**

사실 처음에는 우리 팀의 프로젝트 주제에 공감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업무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건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 온 나였기에 주제를 받아 들이기 위해선 스스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참 많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책도 많이 읽었다. 이렇게 세 차례 발표를 준비하고, 해외방문연구조사까지 진행한 캡스톤 과정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혼(魂), 노력과 근성의 과정: 창(創),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통(通)!

사람을 움직여 태업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는 것, 현재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근성을 가지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모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카데미 과정에서 몽상가나 외골수가 되지 않으려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직면한 과제를 대하는 나의 처신과 대처 방법을 되돌아보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성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과 한정된 시간과의 싸움이 반복되면 좀 더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

**비영리 분야의 MBA보다 MFA(Master of Fine Art)로 인재 양성에 힘쓰다!**

교육의 힘을 굳게 믿은 퇴계 이황은 공부에 관심 없는 게으른 자녀에게 결코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큰 소리를 내는 대신 자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편지로 대신하였다고 한다. 아카데미는 수강생들이 비영리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단련하는 과정을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는 과정이었다. 교육을 받은 7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한 분 한 분 찾아뵙며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 동기들과 아카데미라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 아산나눔재단,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이 글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아카데미 동문 프로그램과 N\_FORUM 등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비영리 전문가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 길 위에 서다

정은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잔잔한 내 삶에 던져진 돌맹이와 같았다. 그건 변화가 필요했고, 변화를 위해서 배움이 필요했던 나 자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작은 돌맹이의 과장은 생각보다 컸다. 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입장에서 아카데미의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 게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비영리 조직에서 꼭 필요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들은 7개월 동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늘 야근과 출장을 반복하던 내게 주 2회 평일 수업이 만만치 않았고, 9월부터는 지각을 자주 하기도 했다. 업무와 지방 출장 등으로 일부 프로그램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캡스톤은 ‘일과 사람’을 함께 보게해 준 과정이다. 거기엔 리플렉션 메모가 큰 몫을 한 것 같다. 과제는 하기 싫었지만 그만큼 남는게 있는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속한 조직이 조금씩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속에 한 점으로 있는 ‘나’도 보였고, 옆에 또 다른 점들도 보였다. ‘충분히 고민하고 말을 뱉자’, ‘온전히 경청하자’, ‘자주 복기하도록 노력하자’, ‘운동장 안에서만 뛰지 말고 밖에서 안을 바라보기도 하자’, ‘역할에 충실하자’ 등 캡스톤의 많은 가르침들이 아직 내 것이 되진 못했다. 하지만 계속 다짐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내 모습에서 다짐했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해외방문연구조사는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다녀온 지 2주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여운이 깊다. 캡스톤 수업 초기에 어렵게 주제를 잡고, 1·2차 발표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 뒤 프로젝트와 연관된 해외 기관들을 직접 선정하고, 컨택하였다. 기관에 방문해서 그들의 전략과 열정을 배우며 캡스톤 프로젝트에 접목하는 것 이상의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조원들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소중한 우리만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경험해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길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있는지, 거기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를 통찰을 통해 알게 해주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인맥을 만들어주고, 그 인맥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해주는 멋진 프로그램이다. ‘사람과 네트워크’는 아카데미를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 새 없이 달려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이제 끝나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 끝에 많은 동문 분들이 서 계신게 살짝 보이는 것도 같아 웬지 ‘끝이 끝이 아닌 것’ 같은 설렘도 생긴다.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시간... 나는 이 길 위에 서 있다.

P.S. 30인 30색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파이팅! 최강 5조 ‘Child Safety Alliance’ 사랑해요!



## 다시 시작

채지연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 설마 될까? 됐다!

시민단체 경력 7년 9개월. 직급 간사. 3기 접수 때부터 관심있게 봐 왔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서를 내기 위해 우선 단체 내부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했다. “총장님, 팀장님 신청 안 하시면 제가 지원합니다!” 내부 경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외부 경쟁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설마 될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고, 2차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설마 될까?’ 하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조리 있게 생각을 말하는 박재희 선생님과 열정 가득한 허일수 선생님과 한 조가 되어 면접을 본 날엔 잘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됐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의 일원이 되었다!

### 도전의 이유

대학교 4학년 때,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이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막연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삶의 기반인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에 지역 풀뿌리 단체에서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랬다. 대단한 사람 한 명이 사회를 바꾸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었다. 함께하는 일을 주선하고, 이를 거들어 주는 것이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내 일이자 역할이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와 사회를 읽을



수 있는 눈과 어떻게 함께 수행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기획력,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활동을 되돌아보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다.

### 비틀거리며 걷는다

오리엔테이션 워크샵의 정진홍 교수님의 강의부터 내 그릇에 다 담지 못할 많은 뜻과 의미들이 가득했다. 캡스톤 수업에서도 일과 사람, 상황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전략적 리더십을 실천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낮은 내 자신을 마주하기도 버거웠다. 돌이켜보니 각 모듈 수업에서도, 캡스톤 프로젝트에서도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반성이 된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멋진 동료들과 선배님들과 함께할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리 호이나키의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의 역자 후기에서 "그는 그 인생 행로의 어떤 지점에서든 단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진정으로 '좋은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찾아서 끊임없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순례자로 남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였다. 앞으로도 나는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길이 막혀 가던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 나올 것이다. 그래도 삶의 단계단계마다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언젠가 상황을 잘 바라보고, 올바른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

## 나는 뜨거워지고 있는가

최영선  
인클로버재단



‘나이가 드니 자꾸 깜박깜박한다’, ‘머리가 굳었다’ 같은 표현들로 자꾸 뒤쳐지고 무기력하게 식어가는 나의 열정을 웃음으로 가리려 했다. 사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비영리 경력 16년차, 한없이 작아지려고 하는 나를 뚫고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 때 다가온 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였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더욱 욕심이 생겼고, 이 벽을 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다행히 벽을 넘을 수 있었고, 삶의 활력도 잠시 얻었다. 하지만 닥쳐온 현실은 여유롭게 내가 채워지고 있는지, 내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살필 겨를을 주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일부터 사무실의 분위기를 살피야 했고, 당일 아침엔 ‘일찍 나갈 수 있을까’ 하며 눈치를 보다 가방을 들고 나와야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수업에 눈을 깜빡이며 졸음을 쫓아야 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필독도서와 논문을 읽으랴 잠깐의 휴식조차 쉽지 않았다.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는 날에는 아이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특히 캡스톤 프로젝트는 제안서 작성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조그마한 프로젝트에도 해매고 있는 나를 보며 우울하기도, 또 많이 지치기도 했었다. 리플렉션 메모는 업무를 뒷전으로 두고 오후 내내 잡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온 7개월은 그만큼의 투자와 노력에 버금가는 결실을 맺게 해주었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어느 하나 비영리 분야에서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아카데미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영리 분야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긴 것은 확실하다. 이를 하나씩 실천해가며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준 아산나눔재단과 차세대 비영리 리더로서 깨어있는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주신 아카데미 교수님들, 그리고 끝까지 존중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자만과 아집을 버렸습니다. 고집과 독선을 버렸습니다.  
 리더십을 얻었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고민할 동료들 얻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절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로의 다름을 통해 나를 다듬어 준 값진 경험

최영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랐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다음 기수 공고가 언제 나지?’ 하며 재단 홈페이지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여다보던 지난 7개월 전의 나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런데 벌써 수료를 하게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주 2회, 그것도 평일에 교육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특히 캡스톤 모듈 과정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무엇이든 내게 주어지면 거뜬히 잘해왔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과정도 큰 문제없이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간절했던 첫 마음과 달리 간간히 후회한 적도 있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든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국장님께서 꼭 참여하고 싶어 하셨던 교육이었잖아요. 노력하는 국장님을 보며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관을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셔야 해요.”라고 이야기해준 직원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배려, 매번 지쳐 집에 들어오는 나에게 용기를 준 나의 남편이 있었기에 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개성 많은 30명의 관계망들과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것 같다. 그 속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은 참 많은 인내가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캡스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6명의 팀원들과 동거동락하며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던 해외방문연구조사 경험은 내 생애 잊지 못할 아주 귀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나 스스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들 한다. 아카데미 교육이 좋긴 좋나 보다. 과정은 끝났지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 교육 때마다 맛있는 간식과 저녁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이 힘내어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아산나눔재단 선생님들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 지구 반 바퀴의 여정을 마치며

허일수

부산광역시 금정청소년수련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드디어 왔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여 번의 수업 참여를 위해 지구 반 바퀴가 넘는 거리를 다니며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미쳤지...’ 였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걸 해냈다는 것, 나와 의 약속, 팀원들과의 약속, 아산나눔재단과의 약속, 배려해준 기관과 직원들간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사회 환경과 힘든 여건 속에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 나가며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시작한 무모한 도전이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그 방향을 올바르게 찾았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힘들다. 하지만 그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만 했던 지난날과 달리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에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칭찬을 해주고 싶다.

또, 지난 7개월간 함께 울고 웃었던 팀원들에게 두 번째로 칭찬을 전하고 싶다. 컵 쌓기 게임으로 만나 순탄치만은 않았던 ‘달걀 옮기기 프로젝트’부터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울고 웃었던 날들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만남과 배움의 순간들에 기준점이 될 것이다. “당신들은 지난 7개월간 저의 거울이자 앞으로의 미래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는 길에 좋은 만남만 있길 바란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강의해주신 각 분야 최고의 교수님들과 아산나눔재단 직원들에게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칭찬을 전하고 싶다. 특히 불편한 감정과 행복한 감정을 오가게 도와준 캡스톤 모듈은 배움이라는 것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와 사유를 통해 철학을 단단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수업이었다. 친절함과 배려로 배움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아산나눔재단 직원분들에게 받은 많은 것들에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기관에서 나 또한 좋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다.

아카데미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끝나지만 30명의 동기를 만나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함께 하겠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시기를 알고 떨어지는 낙엽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는 아름답게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 그래! 능히 성실하게 걸어가자!

황 희 성  
아름다운커피



먼저 7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지지해 준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관 업무와 병행하면서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이란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는 일을 결코 쉽지 않았다. 각 모듈을 교수님들과 아산나눔재단 관계자 분들께서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힘들기는 했지만, 머리는 채우고 마음과 생각은 비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함께 의지하며 뚝고 나온 우리 동기들에게 정말 멋지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나에게 ‘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했는가?’, ‘아카데미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나에 대한 이해와 용기, 그리고 함께 고민한 든든한 동기들을 얻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하다.

이제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외치고 출발해볼까?



“한쪽으로 치우진 것이 능히 성실하게 되면 성실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더욱 드러나고, 더욱 드러나면 밝게 되고,  
밝게 되면 상대를 감동시키게 되고, 상대가 감동되면 상대가 따르게 되고,  
상대가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오직 천하에서 지극히 성실하여야 능히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그래! 능히 성실하게 걸어가자!





제5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Photo Album







THE ASAN NANUM FOUNDATION







ASAN FRONTIER ACADEMY







2016. 06. 09  
~ 2016. 12. 17



홈페이지

[www.asan-nanum.org](http://www.asan-nanu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https://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http://blog.naver.com/asan_nanum)

---

우 리 의 성 장 이  
따 뜻 한 세 상 을  
만 들 어 갑 니 다

---

